

N% 성과급과 그 후유증은?



이정혁
西村브리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 이후 산업계에선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도체발 '이익의 N% 성과급' 확산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의 5개 법인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 등이 쟁점인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기아·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각각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 약화로 구조조정이 논의 중인 산업에서까지 각종 이익 배분 요구가 나오는 등 상황은 점압경이다. 삼성전자 처럼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압박에 차례차례 'N% 성과급'을 받아들일 경우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 전 산업에서 표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급기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회원사들에 권고문을 보내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아니고, 노동법상 단체교섭

대상도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성과급은 올해 노사 간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은 우리나라 기업에 낯선 질문을 던진다. 이익이 낮을 때 얼마나 나눌 것인가. 회사 안에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주주, 협력사, 지역 사회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인가.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고통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기준은 누가, 언제, 얼마나 투명하게 정할 것인가. 삼성전자 처럼 사업부가 넓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은 초과 성과를 보상하면 서로 적자 사업부의 소외감은 어떻게 줄일지 등등.

N% 성과급 요구가 나온 상황이니 만큼 이 참에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성과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성과급 지급과 관련 영업이익 및 퍼센트를 재원으로 삼을지, 사업부와 개인 성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 적자 사업부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보상 방식도 현금 일변도가 아니라 자사주, 이연 지급, 장기성과연동 보상 등 여러 지급 방법을 제시해 단기 호황의 과도한 현금 유출을 막아야 한다. 또 초과 성과는 특

정 사업부만의 승리가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품질, 영업, 지원조직, 협력사 등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이니 성과를 만든 부문에 더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안전판을 함께 뒤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되는 스위스에는 국민 10만 명이 청원하면 전국민투표를 강행하는 특이한 법이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유급 휴가 연장'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정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자는 법안이었다. 아마 한국이었으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었다. 하지만 스위스는 66% 반대, 부결이었다. "휴가를 늘리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유였다. 스위스에서는 올해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초부유층 상속세 50% 부과' 안건이 올라왔다. 결과는 78%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국민들은 "부자를 털면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본과 기업이 세금 쓴 나라로 탈출해서 스위스 경제가 망가진다"는 경제학 원론을 꿰뚫고 있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는 집단 지성이었다.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기업의 노조도 스위스 국민들 같은 '공짜 치즈는 쥐 땀에만 있다'는 사실을 각인할 시기라고 본다.

ljin@metroseoul.co.kr

피지컬 AI 시대, 한국은 준비됐나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AI의 다음 물결은 피지컬 AI다." 방한을 앞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시선은 이미 피지컬 AI로 향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AI 홈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

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LG전자도 AI 홈과 서비스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다. 피지컬 AI의 경쟁력은 단순히 좋은 AI 모델이나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로봇이 견고, 물건을 집고,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결국 학습 자산이 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와 각종 규제, 제한적인 실증 환경 등을 이유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로봇이 실제 생활 공간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환경 역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대규모 실증과 데이터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중국은 국

가차원에서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며 공장과 물류 현장, 연구시설 등을 실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피지컬 AI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로봇이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축적한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만큼 산업 현장과 일상 공간을 아우르는 실증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 '운동장'을 만들 차례다.

/hyeon@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 (음 4월 2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차분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낍니다. 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4년생 들떠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목표가 너무 큰 것이 탈입니다. 61년생 갈팡질팡하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3년생 유리하게 흐름이 변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50년생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다소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빚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63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5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7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52년생 나이 어린 쥐띠를 조심하세요. 64년생 혼자 꾸리기 보다는 동업을 고려해 보세요. 76년생 서두르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88년생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53년생 큰 일을 이뤘 행복하게 됩니다. 65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나 일은 이루어집니다. 89년생 남도 보고 뽕도 따는 하루입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주위의 말은 듣고 꺾이지 마세요. 67년생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79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91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56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68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 진전이 더 알찬 하루입니다.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조심하세요. 92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57년생 두려움을 떨리고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69년생 재물이 아주 좋습니다. 81년생 만족만한 결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93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색잡기를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59년생 돈이 술술 새어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1년생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83년생 주변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95년생 애인과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순수견양, 작은 것의 힘

순수견양(順手牽羊)은 '손에 잡히는 대로 양을 끌고 간다'는 뜻이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 기회가 생기면, 굳이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취한다는 의미다. 이는 적진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전략으로 중국 병법 36계 중 하나이다. 이 전략을 현대적 지혜로 해석한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워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용주의에 가깝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원대한 포부나 주도면밀한 전략만이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리적 행동이 큰 결과를 바꾸어 놓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려면 치밀한 전략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국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적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운명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니 준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연히 마주친 양의 고삐를 잡아채려면 그럴만한 실력을 평소 애써야 한다. 재성이 강한 사주는 돈의 흐름을 포착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경제적 이익에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주는 순수견양이 잘 어울린다. 언제 어디서든 작은 이익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투자 정보나 인맥 같은 기회를 찾아내고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쟁긴다. 자잘한 것에 연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 순간 아주 큰 기회를 끌어온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한 방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적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적은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너무 큰 기회를 노리다야 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실수를 줄여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1	2
9		7						3
2					1			5
		4	7	2	6			
			6		4			
			5	4	3	1		
	7		9					1
3						8		9
8	4	1					6	7

9		4		8		3	2	5
			8		3			
7	6			2	5			
		7			1			
1	5					2		6
			2			4		
			3	4			5	1
			1		8			
6	4	8		1		9		3

2	9	9	6	8	2	1	7	8
6	7	8	2	9	1	9	2	8
1	8	7	8	9	6	2	2	9
9	2	1	8	7	9	8	6	2
9	2	7	8	9	6	8	1	
8	6	8	9	2	7	1	9	
7	9	6	1	2	8	9	8	
8	8	9	2	1	7	2	9	6
2	1	2	9	6	8	8	9	7

8	2	6	2	1	9	8	7	9
2	7	9	8	9	1	6	2	8
1	9	9	2	7	9	2	6	8
2	1	7	6	8	2	9	8	9
9	8	2	7	2	6	9	8	1
6	8	1	9	9	2	2	7	
8	6	1	9	2	7	8	9	2
7	9	2	8	6	8	1	9	2
9	2	8	9	8	2	7	1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